

VOL.543 2025.03.24.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CONTENTS

01 | 의료서비스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급성장, 핵심 거점으로 중국·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부상	1
중국 충칭 하이푸 병원, 세계 최초 5G 원격 초음파 종양 수술 시행	1
캐나다 보건부, 예방의료 지침 개정 위해 태스크포스 활동 일시 중단	2
핑안헬스, 24시간 의료 상담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닥터서비스 핑안 신이 출시	2
인도 잠무·카슈미르 장관, 지역 의료인프라 강화 위해 HCIP 예산안 발표	3
브이씨 헬스, 미국 공공 부문 원격의료 플랫폼 계약 체결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3
일본 오사카, 바이오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위해 '바이오이코노미 허브 재팬 2025' 개최	4
태국 보건부, 6대 유망 산업 중심 보건 경제 전략 발표	4

02 | 디지털헬스케어

EU, 의료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수사 프로젝트' 출범	5
씨더사인즈, 코슬라 벤처스로부터 AI 기반 조기 암 진단을 위한 투자 유치 발표	5
영국 러프버러 대학, AI로 학습장애 환자의 병원 입원 기간 76% 정확도로 예측	6
AI 의료 빅모델 등장, 의료산업 혁신 가속화	6
킨드럴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반 의료 어시스턴트 '드래곤 코파일럿' 출시 예정	7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AI 예측 도구로 낙상 위험 및 감염 조기 감지해 입원율 70% 감소	7
전 미 사이버 사령관, 의료 분야 AI에 대한 새로운 사고 촉구	8
유럽연합,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HDS)' 규정 발표...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	8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3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노보 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 직접 판매 플랫폼 '노보케어' 출시	9
중국,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 속에서 일루미나 시퀀서 수입 금지	9
미국 의회,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 규제 법안 추진	10
LCS, 세계 최초 3D 프린팅과 통합 환기 시스템 결합한 맞춤형 휠체어 쿠션 개발	10
브라질 대통령, 12월 16일을 국가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날로 지정	11
핀란드 파론 파마슈티컬스, 벡스마릴리맵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 획득	11
아부다비 뉴욕대, 냉동 압 수술 정밀도를 높이는 혁신 도구 공개	12
상하이 루이진 병원, 맥봇 로봇 수술로 심부정맥 치료 혁신	12

//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급성장, 핵심 거점으로 중국·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부상

-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최첨단 의료기술 △합리적인 비용 △글로벌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주요 의료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음
- ① 중국: △줄기세포 치료 △암 치료 △전통 중의학 등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② 말레이시아: △심장질환 치료 △정형외과 시술 △불임 치료 분야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을 갖춘 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와 페낭(Penang)이 대표적인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함
- ③ 태국: △성형수술 △치과 치료 △웰니스 프로그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신속한 의료비자 발급 및 정부의 의료관광 지원 정책을 통해 △유럽 △중동 △미국 등 외국인 환자들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④ 싱가포르: △암 치료 △심장질환 치료 △로봇 수술 등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 허브로 평가받고 있으나, 높은 치료 비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의료관광 시장이 형성됨
- 향후 △원격진료 △AI 기반 진단 △정부 주도 의료 정책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Travel Daily News, 2025.03.05.]

// 중국 충칭 하이푸 병원, 세계 최초 5G 원격 초음파 종양 수술 시행

- 중국 충칭(重庆) 하이푸(海扶) 병원이 2025년 3월 6일 세계 최초로 5G 원격 초음파 집중술(Focused Ultrasound Ablation, FUA)*을 활용한 비침습적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함

* 고강도 초음파를 한 지점에 집중시켜 체내 병변을 가열하고 과사시키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피부 절개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임

- 이번 수술에서는 하이푸 병원의 의료진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케냐 나이로비 해부센터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의료기기**를 원격 조종해 자궁근종 환자를 치료함

** 초음파 집중술의 한 종류로, 깊은 조직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정 병변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강점을 지니는 의료기기

- 수술은 하이푸 병원의 의료진이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진행되었으며, 환자는 수술 없이 초음파 집중술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함
- 전 세계 208개 병원의 하이푸 미세 비침습 치료센터가 이번 수술을 실시간으로 참관하며, 의료 기술 혁신의 성과를 보게 됨
- 이번 수술 성공은 중국의 독자적인 의료기술이 글로벌 원격의료 분야에서 발전함을 의미하며, 향후 5G 기술을 활용한 비침습적 치료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5G와 비침습적 치료의 융합 모델은 전 세계 종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환자들이 해외로 이동하지 않고도 자국 내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CNR, 2025.03.03.;QQ, 2025.03.11.]

// 캐나다 보건부, 예방의료 지침 개정 위해 태스크포스 활동 일시 중단

- 캐나다 보건부 장관 마크 홀랜드(Mark Holland)는 캐나다 예방의료 태스크포스(Canadian Task Force on Preventive Health Care)*의 △운영방식 △임무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함
- * 근거 기반 예방의료 지침을 개발하고,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권고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
- 캐나다 국민 및 보건 분야 주요 관계자들은 젊은 연령대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가 권장 유방암 검진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지 않아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설정했다고 비판함
 -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권장 유방암 검진 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이에 따라, 홀랜드 장관은 업무를 현대화하고 일차의료 제공자에게 증거 기반 임상 실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중단하고 기관에 대한 외부 검토를 요구함
 -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외부 전문가 검토는 조직의 운영 구조와 임무, 기존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자료 수집을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마련 중임
 -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예방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Gov.canada, 2025.03.04.;Global News, 2025.03.04.]

// 핑안헬스, 24시간 의료 상담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닥터서비스 핑안 신이 출시

- 중국 핑안헬스(Ping An Health)가 아바타를 활용하여 중국 유명 의사들의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닥터서비스 '핑안 신이(Ping An Xin Yi)'를 출시함
- 平安健康**
- 핑안 신이는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의사를 모델로 한 가상의 의료진을 구현했으며,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한 AI LLM(Large Language Model)**이 이를 구동함
- * AI와 3D 그래픽기술을 결합하여 실제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행동을 구현하는 가상 캐릭터로, 의료·교육·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 이해 및 생성이 가능한 AI 모델
- 현재는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외과 △전통 중의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
 - 사용자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통해 AI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보고서 해석 △개인 맞춤형 약 복용 리마인더 등의 기능이 추가되고 있음
 - 핑안 신이는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비용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은 AI 의료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원격진료 △AI 기반 의료 상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R Newswire, 2025.02.26.;Healthcare IT News, 2025.03.04.]

// 인도 잠무·카슈미르 장관, 지역 의료인프라 강화 위해 HCIP 예산안 발표

- 인도 잠무·카슈미르 선임 장관(Chief Minister of Jammu and Kashmir)* 오마르 압둘라(Omar Abdullah)가 지역 의료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헬스케어 투자 정책(Health Care Investment Policy, HCIP)에 따른 예산안을 발표함 <관련 내용 보기> ▶ 예산 발표 2025-26(Budget Speech 2025-26)
- * 인도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행정 수반으로, 주 정부 운영 및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함
- HCIP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모든 지역 병원에 CT(Computed Tomography)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 110억 루피(한화 1,800억 원)를 배정함
- 또한, 의료기기 예산을 기존보다 두 배 증가한 총 400억 루피(한화 6,600억 원)로 확대했으며, △북부 카슈미르(North Kashmir) △피르 판잘(Pir Panjal) △체납 밸리(Chenab Valley) 등 3개 지역에 각각 45억 루피(한화 750억 원) 규모의 심장 카테터 검사실(Catheterization Laboratory)을 신설할 계획임
- 향후 3년간 모든 신규 국립 의과대학에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및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시설을 도입하고, 83개 지역 병원 및 지역사회 헬스센터(Community Health Centres, CHCs)에서 투석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HCIP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의료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잠무·카슈미르는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Brighter Kashmir, 2025.03.08.;Government of J&K, 2025.03.18.]

// 브이씨 헬스, 미국 공공 부문 원격의료 플랫폼 계약 체결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캘리포니아 원격의료 기술개발 기업 브이씨 헬스(VSee Health)가 미국 내 주요 카운티와 44만 달러(한화 6억 4,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화이트 라벨(White-label)* 원격의료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 특정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드 없이 제공한 뒤, 구매 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적용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IT △소프트웨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됨
- 또한, 맞춤형 디지털헬스 플랫폼을 도입해 해당 카운티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임
- 이번 플랫폼은 모듈형 구조(Modular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 부문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신속하게 맞춤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됨
- 또한, △맞춤형 접수절차 △동의서 자동 처리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와 같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 △AI 의료진 매칭 알고리즘 등을 포함해 효율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주요 우울 장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평가 도구
- 이번 계약은 브이씨 헬스의 미국 공공 부문 시장 확대를 의미하며, 기술 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의료 소외계층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번 플랫폼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사한 공공 부문의 원격의료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01net, 2025.03.05.;Stock Titan, 2025.03.05.]

“ 일본 오사카, 바이오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위해 ‘바이오이코노미 허브 재팬 2025’ 개최

- 일본 오사카에서 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 '바이오이코노미 허브 재팬 2025(Bioeconomy Hub Japan 2025)'가 2025년 4월 17일~18일 양일간 개최됨
- 이번 행사는 바이오커뮤니티 간사이(Biocommunity Kansai)*가 일본 내 7개 내각부 인증 바이오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플래너터리 헬스(Planetary Health)**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관련 내용 보기

- * 일본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기술 및 생명과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조직
- ** 인간 건강과 지구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및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함
- 심포지엄에는 △환경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글로벌 헬스의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일본 및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세션이 마련됨
- 또한, 8개 바이오 커뮤니티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와 일본 유망 스타트업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포스터 발표 세션도 준비됨
-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바이오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플래너터리 헬스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이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환경 및 보건 문제 해결 방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Jaca, 2025.03.06.:Bioeconomy Hub Japan, 2025.03.18.]

“ 태국 보건부, 6대 유망 산업 중심 보건 경제 전략 발표

- 태국 보건부가 보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고, 6대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약 6,900억 바트(한화 29조 5,500억 원)를 경제에 투입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3.39%를 차지하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전략은 태국의 전통건강 산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방제품 △건강식품 △의료관광 등의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또한, 첨단 치료제(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고, 개인 건강 및 미용 산업 확장에도 투자할 계획임
- 태국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과 보건부는 경제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질 높은 건강제품을 개발 및 홍보하는 데 협력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자국을 글로벌 웰니스 및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고,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에게 보건 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계획은 태국 보건 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Nation Thailand, 2025.03.04.:Asia News Network, 2025.03.05.]

// EU, 의료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수사 프로젝트’ 출범

- 유럽의 12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1,240만 유로(한화 약 1,866억 원)의 지원을 받아 의료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헬스 데이터 역량을 갖춘 지속가능한 의료 수사(Sustainable Healthcare with Digital Health Data Competence, SUSAs) 프로젝트'를 시작함
- 수사 프로젝트는 디지털헬스 역량을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20개의 학사과정 △26개의 석사과정 △현직 전문가들을 위한 평생학습 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의 5개 기술 및 헬스 데이터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강의 내용 구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있음
- 수사 프로젝트는 의료종사자의 디지털 기술 부족 문제, 의료 혁신을 개발하는 기술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4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6,5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하고, 660명의 중견 의료전문가에 대해선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켜 유럽의 디지털 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임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의료종사자의 디지털 역량이 환자 치료와 의료 혁신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의료 분야의 변화를 예고함



Co-funded by the European Union

▶ 관련 내용 보기

[FINANCIAL TIMES. 2025.03.05.:Benchmarkbeat. 2025.03.05.]

// 씨더사인즈, 코스라 벤처스로부터 AI 기반 조기 암 진단을 위한 투자 유치 발표

- 영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씨더사인즈(C the Signs)가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코스라 벤처스(Khosla Ventures)로부터 800만 달러(한화 약 115.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AI 기반 조기 암 진단 플랫폼을 강화함
- 씨더사인즈는 환자의 증상과 전자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암 위험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함
- 영국의 122,1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플랫폼은 99.3%의 민감도로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이 회사는 미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추진 중임
- 이번 투자는 씨더사인즈의 기술이 미국에서 채택되어 조기 암 진단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AI 도구를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조기 암 발견율을 크게 향상시켜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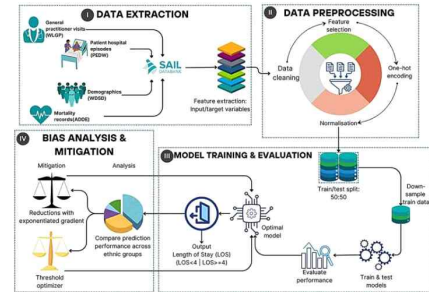
[Healthcare IT Today. 2025.03.04.:C the signs, 2025.03.18.]

“ 영국 러프버러 대학, AI로 학습장애 환자의 병원 입원 기간 76% 정확도로 예측

- 러프버러대학교(Loughborough University)의 연구진이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병원 입원 기간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함

- 이 AI 모델은 데코드(DECOD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6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 입원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음

* 개인 스스로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됨



▶ 관련 내용 보기

-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 NIHR)은 지적 장애인과 다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관리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DECODE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모델은 초기 병원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 입원을 76%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음

- 분석 결과, 장기 입원은 정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델은 장기 입원의 주요 원인들을 식별함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이러한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응급 입원을 줄이고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법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습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치료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Digital Health. 2025.03.04.:Decode, 2025.03.18.]

“ AI 의료 빅모델 등장, 의료산업 혁신 가속화

- 최근 중국에서는 AI 기반의 의료 빅모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음

* 의료 빅모델(Medical Large Language Models 또는 Medical LLMs)은 방대한 양의 의학 문헌, 임상 데이터, 의료 기록 등을 학습하여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말함

- 푸단대학 중산병원(Fudan University Zhongshan Hospital)과 상하이 과학지능연구원(Shanghai Science Intelligent Research Institute)은 다중 모달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능형 진단 및 전자 의무기록 자동화를 구현한 중국 최초의 AI 기반 심혈관 의료 모델인 ‘카디오마인드(观心大模型, CardioMind)’ 베타 버전을 공개함



- 카디오마인드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정확한 진단 지원을 위해 의료분야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환자의 △증상 △병력 △검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자동으로 진료기록을 생성하고 AI 기반 진단을 제공함

- 데이터 보안을 위해 모델은 암호화 및 익명화를 적용하고, 환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평가 모듈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 맞춤형 치료 권장 사항 △질병 진행 예측 △AI 기반 수술 계획 등을 포함한 기능 향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문 지식을 확장 가능한 디지털 의료 솔루션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新浪财经. 2025.02.27.:Orbital Today, 2025.03.04.]

// 킨드릴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반 의료 어시스턴트 ‘드래곤 코파일럿’ 출시 예정

- 미국의 다국적 IT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킨드릴(Kyndryl)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임상 문서 자동화 및 환자 치료 향상을 위해 설계된 AI 기반 의료 보조도구인 '드래곤 코파일럿(Dragon Copilot)'을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드래곤 코파일럿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임상인들이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AI 보조도구는 기존 의료 워크플로우에 통합되어 △주변노트 생성 △진료 기록 제안 △방문 후 요약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함
- 이 시스템은 데이터 보안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헬스케어(Microsoft Cloud for Healthcare) 내에서 운영되며, 환자 프라이버시 규정을 준수함
- 킨드릴은 2025년 5월부터 전 세계 병원 및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드래곤 코파일럿을 자사의 의료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예정임
- 이 AI 기반 솔루션은 임상인의 번아웃을 크게 감소시키고 의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의료 문서화와 환자 참여 분야에서 AI 도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HIT Consultant. 2025.03.03:MSN. 2025.03.05.]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AI 예측 도구로 낙상 위험 및 감염 조기 감지해 입원율 70% 감소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예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세라(Cera)가 개발한 AI 기반 예측 도구를 도입하여 낙상 위험 평가 및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고 있음
- 이 AI 도구는 매월 200만 건 이상의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에서 활용되며 혈압과 심박수와 같은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97%의 정확도로 건강 악화를 예측함
- 이 시스템은 NHS 통합 의료 체계(ICS)*의 3분의 2 이상에 도입되어 일일 최대 5,000건의 고위험 경보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입원율을 최대 7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 NHS 통합 의료 체계(Integrated Care System, ICS)는 영국의 NHS가 지역 단위로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낙상 예방 외에도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와 같은 겨울철 질병의 초기 증상을 감지하여 조기에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음
- ** 이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며, 특히 유아와 노인에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AI를 활용한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응급 입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노인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며,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igital Health, 2025.03.05.:MSN, 2025.03.05.]

“ 전 미 사이버 사령관, 의료 분야 AI에 대한 새로운 사고 촉구

- 전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국장인 폴 나카소네(Paul Nakasone) 장군은 의료 분야가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하면서 AI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함
- 나카소네 장군은 HIMSS25(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2025)*에서 연설하며, △AI가 향상된 진단 △신약 개발 △행정 효율성을 통해 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함
- * 2025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헬스케어 정보 및 기술 컨퍼런스
- 그는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방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사이버 보안 협업 모델의 도입을 제안함
- 나카소네 장군은 △정책 △코딩 △임상 실습 등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갖춘 AI 준비 인재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분야에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그는 의료 기관들이 기술 발전과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랜섬웨어(Ransomware)***와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략적으로 AI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 ** 보안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송 시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보장하는 규칙과 절차의 집합(예: SSL/TLS, IPSec)
- ***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 AI를 수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은 환자 치료를 향상시키고, 운영을 효율화하며, AI 중심 산업에서 디지털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음



[Healthcare IT News, 2025.03.05.;Govciomedia, 2025.03.06.]

“ 유럽연합,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HDS)' 규정 발표...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

-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규정이 공식 발표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건강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및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구축됨
- EHDS는 단계별로 도입되며, 우선 1차 건강 데이터 공유가 곧 시작되고, 임상 시험 및 유전 데이터와 같은 2차 데이터 활용은 2029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데이터 접근 요청 템플릿 △안전한 처리 기준 △데이터셋 설명 등을 포함한 구현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인 테흐다스(Towards a European Health Data Space, TEHDAS)*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및 접근 정책을 개선하고, EHDS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관련 내용 보기> ▶ 테흐다스2 프로젝트(TEHDAS2)
- * EHDS의 조성을 위해 보건 데이터의 2차 활용을 촉진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개국에 참여한 공동 작업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 중인 TEHDAS2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9개국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기술 사양을 개발하고 있음
- 이 이니셔티브는 의료 데이터 공유에 혁신을 가져와 의료연구의 혁신, AI 기반 의료 솔루션, 환자 중심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을 유럽 전역에서 촉진할 수 있음



▶ 관련 내용 보기

[Inside Privacy, 2025.03.05.;European Commission, 2025.03.05.]

노보 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 직접 판매 플랫폼 '노보케어' 출시

- 덴마크 제약 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자체 온라인 약국 플랫폼 노보케어(NovoCare)를 통해 위고비(Wegovy)*를 직접 환자에게 배송하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함
 - *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약물로, 혈당 조절을 돕고 식욕을 억제하며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체중 감소에 효과적임
- 위고비는 비만치료제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무보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도매가 1,349 달러(한화 195만 원)에서 약 63% 할인된 499 달러(한화 72만 원)에 제공됨
- 2024년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매출은 651억 덴마크 크로네(한화 131억 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이번 정책은 복합 제약사**와의 경쟁 심화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부족 해소 선언을 반영함
 - ** 기존 의약품과 혁신 신약 모두를 다루며, 다양한 질병 치료제를 연구, 개발, 판매하는 제약 기업
 - ***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서, 당뇨병 관리와 체중 감소를 돕는 주사제 및 경구 약물로 사용됨
- 노보케어는 경쟁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온라인 약국 플랫폼 릴리 다이렉트(LillyDirect)와 유사한 모델로, 위고비 외 당뇨병 및 성장 장애 치료제를 포함해 센터웰 약국(CenterWell Pharmacy)****을 통해 배송됨
 - **** 건강 보험사 휴마나(Humana)가 운영하는 센터웰 약국은 처방약을 가정으로 배송하는 우편 주문 약국 서비스를 제공함
- 노보 노디스크 부사장 데이브 무어(Dave Moore)는 노보케어는 FDA 승인 위고비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90% 이상의 보험 가입 환자가 월 최대 25 달러(한화 3만 원)만 지불한다고 강조하며, 약 5,500만 명의 미국 환자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함



[MediCityNews, 2025.03.05.;PR Newswire, 2025.03.05.]

중국,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 속에서 일루미나 시퀀서 수입 금지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인 일루미나(Illumina)의 차세대 시퀀싱 시퀀서(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Sequencer)*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실행함
 - * 고속 대량 유전체 분석이 가능한 첨단 DNA/RNA 염기서열 분석 장비
- 이 금지 조치는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내 자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냄
- 일루미나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 NGS 시장에서 34.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연간 약 3억 달러(한화 약 4,336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기기 판매가 줄어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당국은 기존에 설치된 일루미나의 시퀀서 사용자가 소모품을 계속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지 조치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혼란과 사용자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공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금지를 계기로 자국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며, 장기적인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전망함



[Gov.cn, 2025.02.17.;Medical Device Network, 2025.03.05.]

// 미국 의회,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 규제 법안 추진

- 미국 의회는 텔레메디신(Telemedicine)* 약물 광고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제약회사와 텔레메디신 업체 간의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마련됨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의료 상담,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방식
- 법안 제안 이후, 힘스 앤 허즈(Hims & Hers)와 같은 텔레메디신 플랫폼이 △체중 감량약 △항우울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비규제 상태로 광고하며, 제약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남
- 제약회사들은 텔레메디신 업체가 복제 약물이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경쟁을 요구함
- 이번 법안은 텔레메디신 업체들이 약물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위험 정보를 생략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광고 기준을 적용함
- 상원의원 더빈(Richard Durbin)과 마샬(Roger Marshall)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에 대한 FDA의 감독을 의무화하며, 부적절한 처방과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포함됨
-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텔레메디신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제약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DTC Perspectives, 2025.03.04.]

// LCS, 세계 최초 3D 프린팅과 통합 환기 시스템 결합한 맞춤형 휠체어 쿠션 개발

- 아일랜드 의료기기 제조업체 LCS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3D Printing)* 기술과 통합 환기 시스템(Integrated Ventilation System)**을 결합한 맞춤형 휠체어 쿠션(WheelAir Custom Cushion)을 개발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편안함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혁신을 이룸
 - * 디지털 설계를 기반으로 재료를 층층이 적층(Additive Manufacturing)하여 입체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
 - **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순환 △정화 △온·습도 조절기능을 결합한 자동 환기 시스템



- 이 쿠션은 개별 사용자의 신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 5단계로 조절 가능한 연성 수준과 격자 구조를 제공하며, 맞춤형 지지와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포함함
- LCS가 2023년에 인수한 스코틀랜드 기업 휠에어(WheelAir)의 환기 기술을 적용한 이 제품은 열과 습기를 조절해 압력 손상과 열 발작을 예방하며,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함
- 제품 발표 이후, 맞춤형 휠체어 쿠션은 △아일랜드 △영국 △유럽 전역의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사용 경험을 통해 높은 평가와 기대감을 확인함
- LCS 설립자 루크 콘웨이(Luke Conway)는 이 쿠션이 휠체어 좌석 분야에서 미기후 조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히며,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전함
 - *** 작은 공간의 △온도 △습도 △공기를 관리해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 회사는 현재 유럽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유통망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안함과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글로벌 수준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Business Plus, 2025.03.03.:3D Printing, 2025.03.05.]

// 브라질 대통령, 12월 16일을 국가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날로 지정

-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월 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12월 16일을 국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약물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알림

* 특허가 만료된 기존 생물약품과 △품질 △안전성 △효능이 유사한 복제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제제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임상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됨

-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안전성과 효능을 가진 저렴한 대안으로,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제공함
- 12월 16일은 2010년 브라질 보건당국(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ANVISA)이 바이오시밀러 승인 규정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며, 역사적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포함됨
- 페드로 웨스트팔렌(Pedro Westphalen) 하원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상원에서 승인된 이 지정에는 브라질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됨
- 발표 이후, 바이오시밀러가 다양한 질병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주목받으며, 의료 접근성 향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짐
-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바이오시밀러의 공공의료 통합과 가격 정책 개선을 촉진하며, 브라질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함



[GaBi, 2025.03.05.]

// 핀란드 파론 파마슈티컬스, 벡스마릴리맵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 획득

- 핀란드의 바이오제약 기업 파론 파마슈티컬스(Faron Pharmaceuticals)는 주력 약물 벡스마릴리맵 (Bexmarilima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골수이형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며, 혈액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추진됨

* 골수에서 혈액 세포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빈혈, 출혈,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혈액 질환

** 미국 내 20만 명 미만의 희귀 질환 치료 약물에 주어지며, 임상 시험 세금 공제와 신약 승인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정 발표 이후, 벡스마릴리맵이 골수이형증후군과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치료에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에서 이 약물에 대한 기대와 투자 관심이 높아짐

***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골수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여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성을 방해하는 악성 혈액암

- 벡스마릴리맵은 CLEVER-1(Common Lymphatic Endothelial and Vascular Endothelial Receptor-1)**** 수용체를 표적으로 면역 억제 상태를 개선하고 항종양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존 치료 저항성을 극복하는 잠재력이 확인됨

**** 대식세포 표면에 있는 면역 억제 수용체로,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수용체

- 벡스맵(BEXMAB) 임상 시험을 통해 벡스마릴리맵이 기존 항암제인 아자시티딘(Azacitidine)*****과 함께 사용했을 때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하며,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함

***** 골수이형성증후군(MDS),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만성 골수증식성 신생물(CMML)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 파론의 최고의학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CMO) 보노 박사(Dr. Bono)는 이번 지정을 치료제 개발의 이정표로 평가하며, 벡스마릴리맵이 MDS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을 강조함

[Drugs, 2025.03.03.; Targeted Oncology, 2025.03.05.]

“ 아부다비 뉴욕대, 냉동 암 수술 정밀도를 높이는 혁신 도구 공개

- 아부다비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Abu Dhabi, NYUAD)의 트라볼시(Trabolsi) 연구팀은 냉동치료(Cryotherapy) 중 암세포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한 형광 나노물질(Nanoscale Thiophene-Graphene-Difluorophenyl-Covalent Organic Framework, nTG-DFP-COF)을 개발하여 암 치료의 정확성과 효과를 향상시킴
- 연구 결과 발표 이후, 극저온 환경에서 해당 나노물질이 암세포를 선명하게 비추는 특성이 밝혀지며, 의료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을 보임
- 연구팀은 생체 적합성과 낮은 독성을 지닌 나노규모 공유 유기구조체(Covalent Organic Framework, COF)*를 활용해 암 조직과 건강한 조직을 실시간으로 구분하며, 수술 중 종양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함
- *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물질로, 높은 표면적과 정밀한 구조를 가지며 촉매, 흡착제, 센서,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냉동수술에 형광 이미징을 통합한 이번 기술은 진단과 치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합하며, 의사에게 즉각적인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됨
- 트라볼시 연구팀의 파라 베예투 박사(Dr. Farah Benyettou)는 이 도구가 재수술 필요성을 줄이고 환자 회복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밝히며, 암 치료 개선에 기여함
- 이 기술의 성공은 냉동수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의료 절차에 형광 이미징 활용을 확대하며, 향후 암 치료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Bioengineer, 2025.03.03.:NYU ABU DHABI, 2025.03.03.]

“ 상하이 루이진 병원, 맥봇 로봇 수술로 심부정맥 치료 혁신

-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부속 루이진 병원(瑞金病院) 심장내과는 맥봇(Magbot) 자기 구동 내비게이션 카테터(Magbot magnetic drive navigation)*와 콜럼버스 3D 심장 전기생리학 매핑 시스템(Columbus 3D Cardiac Electrophysiology Mapping System)**을 활용해 심부정맥 환자 3명에게 정밀한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며, 심장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음
- * 자기장(Magnetic Field)을 이용하여 로봇을 유도하고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 ** 심장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첨단 의료 기기로, 심장 내부 구조와 전기 활동을 정확하게 시각화함
- 이 기술은 제네시스 RMN 로봇 시스템(Genesis RMN Robot System)***과 함께 심장 내 병변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치료하여, 기존 수술시스템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임상 결과를 제공함
- *** 최첨단 로봇 자기 내비게이션 기술로, 심장 전기생리학적 시술에서 정밀한 제어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됨
- 또한, 이번 수술은 상처를 최소화하는 침습적 접근법을 통해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치료 성공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루이진 병원은 5G 원격 수술과 고성능 장비 개발을 통해 많은 환자에게 첨단 치료를 가능하게 할 계획임
- 진 치 원장(金奇主任医师)은 이 기술이 중국산 자기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심부정맥 환자 치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網易, 2025.03.03.]